

碩士學位請求論文

濟州島 方言의 格語尾 研究

指導教授 金 洪 植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鄭 雲 澤

1983 學年度

濟州島 方言의 格語尾 研究

이를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提出者 鄭 雲 澤

指導教授 金 洪 植

1983年 月 日

鄭雲澤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主 審 ①인

副 審 ①인

副 審 ①인

1983 年 月 日

I. 序 論	1
1.1 研究目的 與 範圍	1
1.2 先攻者 業績	3
1.3 接近方法	4
II. 本 論	5
2.1 格語尾一覽	5
2.2 各 論	6
2.2.1 主 格	6
2.2.2 對 格	13
2.2.3 屬 格	17
2.2.4 處 格	19
2.2.5 造 格	26
2.2.6 共 同 格	28
2.2.7 呼 格	30
2.2.8 不 定 格	32
III. 結 論	36
參 考 文 獻	39
英 文 要 約	41

I . 序 論

1.1 研究目的 및 範圍

제주도는 絶海孤島로 稀貴하고도 특수한 古語들이 殘在하고 있어 그 方言的 가치는 이미 國語學界에 잘 알려진 사실이며, 제주도 방언이 中部方言과도 다른 獨自性을 지니고 있음은 옛 文獻記錄¹⁾에도 언급되고 있어 제주도는 古語의 寶庫地域으로 학자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교통 수단의 발달과 매스미디어에 의한 外來文化의 보급과 전파, 그리고 의무교육에 따른 標準語의 사용 등은 산간 벽촌 어떤 마을이든 미치지 않은 곳이 없어 제주도 방언(이하 '본도방언'이라 칭함)은 점차 소멸되어 가는 과정에 놓여 있다. 급변하는 현실 속에서 방언을 조사하고 정리하는 作業은 실로 중대하며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본도 방언의 가치와 諸特徵을 확인한 여러 學者들은 이미 音韻論은 물론 形態論에 이르기까지 많은 업적을 남기고 있다.²⁾ 최근의 研究業績만 하더라도 /·/ 音を 비롯하여 /··/音, /ㄱ/音 등의 연구와 定動詞語尾로 나타나는 動作相의 發達, 尊待法에 아직 主體尊待法이 確立되어 있지 못한 사실과 語彙面에서 古形 維持와 함께 日本語辭 借用이 많다는 사실 등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본도 방언 연구사를 통하여 볼 때 音韻論과 形態論에 집중되어 연구되어 왔음을 看破할 수 있으며 統辭論과 意味論에 대한 研究가 아직껏 未洽한 상태로 남아 있다. 더구나 子音體系의 定立, 各種接尾辭에 대한 體系的인 연구가 미진된 상태로 남

註 1) 金 淨 「濟州風土錄」

土人語音 細高如針棘 目多不可眺 居之概久 自能通文
金尙憲 「南槎錄」

北島語音 酷似華如驅牛馬之聲尤不可分辨
申光洙 「石北詩集」

方音多細急 壽姓半高良

2) 濟州島方言에 대한 業績은 다음 論文을 參照.

玄平孝: "濟州島方言研究에 대한 檢討(I · II)" (方言 1 · 2),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79.

金榮敦 · 申幸澈 · 姜榮峯: "鮮放後 濟州研究概觀: 語文 · 民俗分野"
(耽羅文化創刊號) 濟州大耽羅文化研究所, 1982.

아 있다.

格語尾만 하더라도 몇몇 학자에 따라 研究된 바 있지만³⁾ 공통어와 相異한 形態만을 다루고 있어 자칫하면 方言이란 共通語와 구별되는 것만을 의미한다는 그릇된 方言觀을 낳을 소지가 많다.⁴⁾ 한지역의 방언이란 그 지역 내에서 사용되는 言語 전체를 말한다고 할 때, 그 방언에 공통어와 同一한 言語形式이나 現象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모두 그 방언의 一部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므로 한 방언을 올바르게 記述하기 위해서는 共通語와 相異한 것은 물론 同一한 言語事實까지도 모두 記述의 대상으로 포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방언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더불어 그 방언이 다른 방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특수성과 공통성이 어떤 것인가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금까지 個別的이고 部分的으로 研究되어 온 格語尾一般에 대하여 一覽表를 提示하고 그 表識들이 보여 주고 있는 形態論的, 統辭論的, 意味論的 諸特徵을 記述하고 이들과 統合되는 名詞句(NP)와의 意味關係 및 動詞句(VP)와의 關係까지 考察하고자 한다.

格的 設定問題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음에도 不拘하고 아직 定立되지 못한 듯한 실정이지만, 一般的으로 格表示 形態를 格語尾(case ending), 後置詞(post-position), 添詞(particle)로 분류되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本攷에서는 格語尾에 한정하여 考察대상으로 삼는다.

格語尾를 몇 개로 구분할 것인가가 問題로 대두되기는 하지만 일단은 普篇性에 따라 主格(nominative), 對格(accusative), 屬格(genitive), 處格(locative), 造格(instrumental), 共同格(cominative), 呼格(vocative) 등으로 분류하여 論議 대상으로 삼는 한편, 安秉禧⁵⁾에 의하여 제기된 不定格(casus indefinitus)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設定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
- 3) 李崇寧: 「濟州島方言의 形態論的 研究」(1957, 1978).
姜根保: “屬格 ‘-ne’의 研究”(1977). “濟州島方言의 接尾辭研究”(1978). “濟州島方言의 曲用에 대하여”(1979).
康貞姬: “濟州方言의 處格 ‘-디’에 관한 一考察”(1980).
姜榮峯: “濟州島方言의 後置詞에 관한 研究”(1981).
4) 崔明玉: 「慶北東海岸方言研究」(1980).
5) 安秉禧: “不定格(casus indefinitus)의 定立을 위하여”, 동아문화 6.

1.2 先 攻 者 業 績

본도 방언의 格에 대한 研究業績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缺陷은 위에서 언급한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그 業績만을 간단히 소개한다.

A. 李 崇 寧

본도 방언의 格語尾에 대한 본격적인 언급이 비롯된 그의 「濟州島方言의 形態論的 研究」(1957, 1978)에 의하면 본도 방언의 格형태들이 육지어에 비하여 省略되는 경향이 濃厚하고(특히 主格, 對格, 屬格), 특이한 格형태로 屬格 ‘-네’, 絶對格 ‘-랑’, 共同格 ‘-영’, 比較格 ‘-왕, -광’, 處格 ‘-레’ 등이 있으며 ‘-日’에 해당하는 語彙로 ‘흐루, 흐를’, ‘粉’의 뜻으로 ‘구루, 구를’의 變形이 존재하고 있어 李朝初期의 格변화의 특이형 해결에 광명을 던지는 것으로 國語史에 공헌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B. 姜 根 保

본도 방언의 格에 깊은 관심을 보여 온 그는 3편의 論文을 發表하고 있다. 곧 (가) “屬格 ‘-ne’의 研究”(1977), (나) “濟州島方言의 接尾辭 研究: ‘tũre’를 中心으로”(1978), (다) “濟州島方言의 曲用에 대하여”(1979) 등이 그것들로 (가)에서는 ‘-ne’가 속격과 복수접미사의 기능으로 記述되는 共時態의 記述을 통하여 公同어에서 사용되는 ‘-의, -들’과의 차이를 밝혀내고, 이를 基底로 하여 ‘-ne’가 二重의 기능을 부담하게 되는 史的인 要因과 起源的인 形成 및 발달까지를 추정하고 있다.

(나)에서는 본도 방언만이 지니고 있는 특이한 格어미 ‘tũre’의 일반성을 확인한 다음 이를 중심으로 하여 密接한 關係에 있다고 믿어지는 形態素의 기능 및 어휘적 분포를 기술함으로써 그 특성을 밝히고 文獻語에 의거하여 ‘tũre’의 形成을 照覽하고 있으며, (다)에서는 본도 방언의 格語尾 중 主格, 與格, 對格, 屬格, 處格에 대하여 그 格形態들의 形成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C. 康 貞 姬

處格研究로 “濟州方言의 處格 ‘-디’에 관한 一考察”(1980)이 있다. 처격 ‘-디’에 대하여 역사적 암시를 받을 수 있는 古文獻에 따른 史的 考察과 병행하여 周邊言語인 만주어의 처격 기능을 지닌 ‘de’와 비교하여 그들의 문법 기능상의 유사성을 고찰하고 있다.

이 외에 姜榮峯의 “濟州島方言의 後置詞에 관한 研究”(1981)에서 格形態의 기능을 지닌 몇 개의 語辭에 대하여 그 形成과 기능을 살피고 있다.

1.3 接 近 方 法

本攷에서 시도하는 바는 본도 방언의 格語尾一般에 대해서 形態論的, 統辭論的, 意味論的 特徵을 記述하는 것으로 綜合的 方法으로 接近하고 있다. 形態素 分析은 構造文法에 터전하고 있으며, 서술어에 대한 名詞語의 구문 및 意味論的인 格關係는 Fillmore의 格文法理論에 기초하고 있으나 그 理論에서 전적으로 다루어 지는 內面格(deep case)을 중심으로 한 설명은 아니다.

여기서 인용된 예문들은 필자가 濟州市, 朝天面, 舊左邑, 涯月邑, 翰林邑 등지에서 조사된 原語民(native speaker)의 言語材가 중심이 되며, 方言 原音 그대로 충실하게 轉寫된 자료집인 玄容駿·金榮敦의 「韓國口碑文學大系 9-1, 9-2」와 진성기의 「南國의 民譚」 등을 참고하였으며 가끔 先攻者의 인용문에서도 힘 입은 바 큼을 밝혀 둔다.

Ⅱ . 本 論

2.1 格 語 尾 一 覽

格은 形態上 活用되지 않음은 물론 단독적 意味를 나타내지 못하고 文內 敘述語와 상관되는 名詞語의 職能이라 할 때 方言의 格形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國語史의 形成 的 實態를 究明한다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 생각한다.

그러므로 共通語와 함께 쓰이고 있는 格語尾와 더불어 本島方言에서만 특이하게 나 타나는 語尾들을 다음 格語尾一覽表와 같이 제시하여 그 特徵과 用法, 機能 및 NP와 VP의 統辭에 의한 意味關係를 살펴 보겠다.

名 稱	形 態
主 格	이, 가, 이서, 에서, ϕ 6)
對 格	르, 을, 를, ϕ
屬 格	이, 의, 네, ϕ
處 格	이, 에, {이/에}서, 디, 레, 드레
造 格	로, 으로
共 同 格	영(이영), 광/왕, 이왕
呼 格	아, 야, 마씀
不 定 格	ϕ

6) ϕ 는 zero 형태소를 뜻하나 여기서는 不定格 형태로 사용하였다.

2.2 各 論

2.2.1 主 格

中世國語에서 現代國語에 이르기까지 主格語尾에는 ‘-이, ㅣ, zero’ 들이 있고 새로 생긴 ‘-가’ 및 존경 형태로 ‘-께서’, 특수 형태로 ‘-에서’ 등이 쓰인다.

본도 방언에서 쓰여지는 주격어미에는 ‘-이, -가’ 와 주격 표시의 기능을 지닌 ‘-이서, -에서’ 가 있다. 그리고 ‘-레’ 가 쓰여진 경우도 있음을 지적한 학자도 있다.⁷⁾ 주격어미 ‘-이’ 는 古代國語에서부터 오늘날까지 공통어에 두루 쓰이고 있는 형태로 본도 방언의 특이한 형태로 볼 수 없으며, ‘-가’ 또한 16세기 이후에 쓰였다⁸⁾ 고 할 수 있으나 공통어에서와 다를 바 없어 그 연결조건은 선행하는 체언(NP)의 음성적 환경, 즉 자음으로 끝나느냐 모음으로 끝나느냐에 따라 ‘-이’, 또는 ‘-가’ 가 선택될 따름이다.

(1) 눈이 독막롭깁지 와노니 놀이가 도라질거라.

(눈이 무릎까지 왔으니 노루가 달려지겠는가.)

(2) 앵도가 익어도 타먹은 사름이 어서.

(앵두가 익어도 따먹은 사름이 없다.)

(3) 담이 낮은 도새기가 튀어 나왓수다.

(담이 낮기 때문에 돼지가 울 밖으로 튀어 나옵니다.)

(4) 풀이 성해도 빌 사름 엇저.

(풀이 자라도 벨 사름이 없다.)

(5) 개가 수퓌도 어떻게 하면 아무 기척도 어시냐.

(개가 짓고 있어도 어떻게 하여 아무런 기척도 없을까?)

(1) ~ (5)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先行體言末音의 開, 閉에 따른 조건만이 ‘-이, -가’ 의 선택을 결정하고 있다. 특히 慶北東海岸方言에서 발견된다고 조사, 보고된 體言末音이 모음일 때도 ‘-이’ 가 연결된다는 현상은 본도 방언에서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그 방언에서 생산적인 발생을 보이고 있다는 複合格語尾 ‘-이가’ 의 형태 즉,

7) 姜根保(1979) op. cit, p.65.

8) 李基文: 「國語史概說」(1980). p.155. (재인용)

‘촌 구드워 자니 비가 세너러서 주르 둔니니’ (鄭澈慈堂安氏書簡)

7. 그 밀이가 물이가 기푸고 9)

8. 알이가 자자름한 개가 아가씨아 알 정도 데지.....

등과 같은 현상이 본도 방언에도 있다고 주장한 학자가 있다.¹⁰⁾ 그 근거로 ‘므쉬 (마소:馬午), 가매 (가마:轎), 응매 (숫말:雄馬), 쉐 (소:牛)’ 등은 「체언 + i」가 後接하여 새 語根으로 바뀐 것이며¹¹⁾ 여기에 주격어미 ‘-가’가 後接하는 것은 複合格語尾 ‘-이가’의 쓰인 점과 같은 것이다. 특히 이를 뒷받침해 주는 사실로 인칭대명사 「나/너 + i」가 「내가/네가」로 曲用하는 예를 들고 있다.

아래 예문을 살펴 보자.

(6) 나 문제 감수다. ¹²⁾

(저 먼저 갑니다.)

(7) 나가 보양 오주.

(나가 보아서 오마.)

(8) 내 문제 감수다.

(내가 먼저 갑니다.)

(9) 내가 집이 갑주.

(내가 집으로 가겠습니다.)

위의 문장 (6) ~ (9)에서 인칭 대명사 ‘나’를 기본형으로 할 때 본도 방언에서의 그 曲用은 ‘나 + ϕ’, ‘나 + |’, ‘나 + 가’, ‘나 + |가’ 등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격어미 형태에 ‘-이, -가’를 비롯하여 복합형 주격어미 ‘-이가’가 있는 것으로 상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음 예문을 검토해 보았을 때 과연 複合主格語尾가 본도 방언에서 생산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시 된다.

9) 崔明玉: op. cit, p.37.

10) 姜根保(1979): op. cit, pp.56~57.

11) 이러한 現象은 全羅道方言과 慶尙道方言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있어 그의 主張을 확고히 하고 있다.

全羅道方言에서는 李秉根의 “雲峯地域의 음라우트 現象” (국어학논문선6, 1977, pp.267~270.)과 慶尙道方言에서는 李炳鎰의 “主格助詞研究” (국어국문학 72·73), 국어국문학회, 1976, p.27. 參照.

12) 姜根保(1979): op. cit, p.58. 재인용

- (10) a. 무쉬가 밧 안트로 뛰어드니.
 (마소가 밧 안으로 뛰어드니.)
 b. 무쉬들이 밧 안트로……
 (마소들이 밧 안으로……)

문장 (10 a)에서는 ‘무쉬가’를 ‘무쉬+ |가’로 분석하였을 때 복합 주격형이 연결된 것처럼 보이고 있다. 그러나 (10 b)에서는 ‘- |’와 ‘이’ 사이에 복수의 뜻을 지닌 접미사 ‘-들’이 끼어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10 a)를 복합격 형태로 보려는 것은 설득력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들’은 ‘셈’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명사에 붙어 그것이 복수임을 표시할 때에는, 그 앞에 어떠한 조사의 插入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¹³⁾ 그러므로 (10 b)의 사실이 충분히 납득되지 않는 지금으로서는 ‘무쉬, 가매, 응매, 쉘’ 등이 主格 /i /가 녹아 들어 化石화된 체언으로 볼 것이 아니라 아예 ‘마소, 가마, 응마, 소’에 대응하는 方言形으로 본다면 문제는 쉽게 풀림과 동시에 본도 방언에는 또한 複合主格語尾 형태인 ‘- |가’는 없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¹⁴⁾

主格語尾 형태로 ‘-이서, -에서’ 및 ‘-서’가 쓰이고 있다. 중세 국어에서도 주격어미 형태로 ‘-애서, -에서, -의서’로 쓰였는데 그 조건은 [단체성]을 나타내는 체언이 주격이 될 때 한정되고 있으며 현재 공동어에서도 集團性을 나타낼 때 및 數詞에 후접하여 주격 표시를 하고 있다.

- (11) a. 中國에선 中國을 하늬 가온 뒤라 흥고…¹⁵⁾
 b. 부텃 나라해션 부텃 나라홀 하늬 가온뒤라 흥고.(月, -30)
 c. 豆羹의셔 여러번 브르시되.
 (12) a. 학교서 회장을 뽑았다.
 b. 우리 둘이서 도와야 한다.

위의 예문 (11)의 경우는 중세 국어에서 쓰였던 예이고 (12)는 현대 국어에서 쓰이는 예이다. 본도 방언에서 쓰이고 있는 ‘-이서, 에서’ 및 ‘서’의 主格表示도

13) 高永根: “현대국어의 접미사에 대한 구조적 연구(I)”, p.86.

14) 가끔 아동들의 발화에서 복합주격어미인 ‘-이가’가 연결된 발화를 접할 수 있는데 언어 발달 과정에서 잘못 도출된 오류로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예: 형이가 싸웠다.)

15) 劉昌惇: 「李朝國語史研究」(1978), p.231. 재인용

위와 같은 예로 미루어 본다면 특이한 현상이라 할 수 없으나 先行하는 체언 (NP) 이 ‘ 학교, 집, 동네, 농촌, 경찰서 ’ 등의 집단성을 지니고 있으며, 동시에 [-有情], [+場所] 의 意味資質을 가지고 있을 때와 수사로 主語의 機能을 지닐 때 ‘ -이서, -에서, -서 ’ 의 형태가 다양하게 쓰여지고 있다. 특히 선행 체언 (NP) 이 [+場所] 의 意味資質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 基底格은 處格이 된다. 그런데 이때에 동사구 (VP) 는 다음 예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動作動詞라야 하는 제약이 따름을 알 수 있다.

- (13) 이번도 동네서 도와산다.
(이번에도 동네에서 도와야 한다.)
- (14) 우리 마을에서 일등해야주.
(우리 마을에서 일등해야 한다.)
- (15) 어떻 경찰이서 알았 와신고.
(어떻게 경찰서에서 알아 갖고 왔는가.)
- (16) 놀음 혼저 집이서 알았 큰일이우다.
(도박한 것을 집에서 알았기 때문 큰 일 났다.)
- (17) 들이서 왜 물앙 오라.
(들이가 소를 몰고 오너라.)

그리고 본도 방언에서 主格語尾의 형태로 다음 예와 같이 ‘ -레 ’ 가 있음을 조사 보고된 바 있다. (姜根保 1979 : p.65.)

- (18) 손지레 서월 간넌 흥여라.
(孫子가 서울 간다고 말하더라.)
- (19) 아시레 이집이 살았찌.
(아우가 이집에 살고 있지.)
- (20) 송아지레 석을 그치다.
(송아지가 고삐를 끊다.)

본도의 서부 지역이라고 그 조사된 지역을 밝히고 있어 확인하려 하였으나 發話하는 言衆을 接할 수가 없었다. 지금도 평안도 방언에서는 주격어미 형태로 이 ‘ -레 ’ 가 쓰이고 있다¹⁶⁾ 는 점을 상기할 때 만약 본도 방언에 이 ‘ -레 ’ 가 존재하고 있다면

16) 「平北方言辭典」 (金履浹編著), 1981.12.30, 韓國精神文化研究院, p.217.
·해레 든다. ·꽃이 열매레 된다. ·나는 바보레 아니다.

이는 국어 方言史에 중요한 의미를 示唆함은 물론, 본도 방언의 계통까지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리라 본다.¹⁷⁾ 왜냐하면 중부 이남에서는 아직 ‘-레’가 주격으로 쓰인 예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본도 방언은 格語尾가 생략되는 형태가 매우 특징적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이승녕 : 1978 : 28) 그러나 다음 예문을 통하여 생략되었다는 문장과 주격 표시가 實現된 문장을 비교해 보면 意味의 辨別的 機能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1) a. 선생이 막 올레레 당도ㅎ는 걸 보양 겁난 집에…
 (선생이 막 집앞 골목 길에 당도하는 것을 보고 겁이난 집에)
 b. 선생 막 올레레 당도ㅎ는 걸 보양 겁난 집에…
 (22) a. 췌당이 촌의서 와수다.
 (췌당(眷黨)이 촌에서 왔읍니다.)
 b. 췌당 촌의서 와수다.

위의 문장 (21) a와 (21) b의 차이와 (22) a와 (22) b의 차이는 어떤 뉘앙스의 차이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즉 ‘선생이’를 ‘선생’으로 바꾸었을 경우, 두 경우의 文脈的 意味는 同一하다고 생각할 수 없다. (21) a의 경우에는 ‘막 올레레 당도한’ 사람은 ‘선생’이 되고, ‘겁’이 나서 이상한 행동을 보인 사람은 他人이 되고 있으나, (21) b에서는 重義性을 내포하고 있어 ‘선생’이 올레레 당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반면에 다른 사물(사람)이 ‘올레에 당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前者가 되든 後者가 되든 ‘겁이난 사람’은 ‘선생’이 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으며, (22) a의 경우에 있어서도 ‘촌에서 온 사람’이 ‘췌당’이 되고 있으나, 주격 표시가 없는 (22) b에서는 ‘췌당’보고 다른 사람이 ‘촌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뜻한다. 그러므로 (21), (22)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격어미가 연결된 경우는 화자의 강한 意志가 나타나 동사구(VP)의 주체를 확실하게 하여 주고 있으나, 주격어미의 표시가 생략되었다고 하는 문장에서는 그 의미가 다르게 나타남은 물론 강조의 의미도 상실하게 되어 일반적인 統合關係만을 형성하여 주는 것에 불과하다. 이것은 주격어미가 ‘강조’나 ‘단정’의 의미를 지닌 添辭의 발달에서 오는 듯하다. 이러한 점에서 (21), (22)에서는 주격어미 有, 無에 따라 그

17) 姜根保(1979)에 따르면 이 ‘-레’가 標準語의 ‘-께서’의 존재 기능을 함께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再考를 요하는 것으로 본다. 예문(18, 19, 20)에서는 존재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의미가 確然히 달라지고 있어 이를 생략된 형태로 간단히 처리할 수만은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생략되었다고 보면 생략되기 이전의 문장과 생략된 문장과는 等價의 意味를 지니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생략된 형식과 無標識의 형식을 구별하기 위하여 zero 形態素 表示 형태인 ‘ ϕ ’을 不定格으로 설정하고자 하며, 이는 본도 방언에 빈번히 볼 수 있는 대격과 속격에서도 같은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형태라 본다. 이에 대해서는 ‘不定格’항을 따로 설정하여 詳述하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국어학계에 많은 논의가 되고, 그 설명에 어려움이 있는 主格重出現象의 문장이 본도 방언에서도 빈번하게 쓰이고 있어, ‘-이, -가’를 온전히 주격 어미로만 취급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문장의 VP가 靜態的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문장에서의 ‘-이, -가’는 屬格이나 與格, 處格 및 對格의 主題化에 의하여 생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23) a. 심이 장사가 되어서.
 (힘이 장사가 되어서.)
 <=장사의 심이 되어서.
- b. 바당이 깊이가 얼맨지 몰란.
 (바다가 깊이가 얼맨지 몰라서.)
 <=바당의 깊이가 얼맨지 몰란.
- c. 아방이 병이 도전 걱정이우다.
 (아버지가 병이 재발하여 걱정입니다.)
 <=아방의 병이 도전 걱정이우다.
- d. 사름이 머리가 조면은 요령껏 살주.
 (사람이 머리가 좋으면 요령껏 산다.)
 <=사름의 머리가 조면은 요령껏 살주.

위 (23)의 예문은 屬格이 主題化되어 나타난 경우로 VP가 ‘되다, 이다, 없다, 좋다’ 등의 靜態動詞에 의한 제약이 따름이 특이하다.

- (24) a. 아시가 밧이 만홍영 부랑쌔주.
 (아우가 밧이 많아서 불량하고 있다.)
 <=아시신디 밧이 만홍영 부랑쌔주.

- b. 나가 재산이 어시난 꺄보암주.
 (내가 재산이 없으니 무시하고 있다.)
 <=>나신디 재산이 어시난 꺄보암주.
- c. 할망이 집이 어선 조들암저.
 (할머니에게 집이 없어서 걱정하고 있다.)
 <=>할망신디 집이 어선 조들암저.
- d. 저 사름이 죽손이 어디 신걸로 아는다...
 (저 사람에게 자손이 어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사름신디 죽손이 어디 신걸로 아는다...)
- (25) a. 할망칩이 돈이 엇저.
 (할머니 댁에 돈이 없다.)
 <=>할망칩에 돈이 엇저.
- b. 이 낭이 유름이 돌럼시네.
 (이 나무에 열매가 달려 있다.)
 <=>이 낭에 유름이 돌럼시네.
- c. 죽녁이 가이 온다.
 (저녁에 그 아이가 온다.)
 <=>죽녁에 가이 온다.
- d. 이 집이 심방이 살았저.
 (이 집에 무당이 살았다.)
 <=>이 집에 심방이 살았저.
- (26) 이빨이 베렝이 먹엄수다.
 (이빨을 벌레가 먹고 있습니다.)
 <=>이빨을 베렝이가 먹엄수다.

위의 예문 (24)는 與格의 主題化, (25)는 處格의 主題化에 의한 主格重出現象으로 볼 수 있으며, (26)과 같이 對格의 主題化에 의한 重出現象도 볼 수 있으나 이 경우의 發話는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다. 이때에도 (24)와 같은 與格의 主題化에서는 VP는 항상 靜態動詞가 오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으나 處格 및 對格의 主題化에서는 動作動詞가 올 수도 있다.

2.2.2 對 格

중세국어에서는 對格語尾의 基本形態로 ‘-리’이 쓰였으며 목적어의 표시가 분명하지 못할 때는 모음조화에 따라 ‘-를, -를’을 구별하여 썼고 體言語幹의 終聲이 자음으로 끝날 경우에는 子音衝突을 廻避하기 위하여 ‘-을, -을’로 표시하여 왔다.¹⁸⁾

본도 방언에서의 對格語尾로도 공통어에서와 같이 ‘-리, 를, 을’이 쓰이고 있으며, 그 중에도 原語民의 발화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은 ‘-리’이다.

- (27) a. 날 ㄷ랑 그릅서.
(날 데리고 가십시오.)
b. 배에 강 자릴 사젠 보난 어서라.
(배에 가서 자리놈을 사려고 보니 없더라.)
c. 드르강 쉼 보렌 흥난.
(들(野)에 가서 소를 보라고 하니까.)
d. 경 소릴 해도 주램시냐.
(그렇게 노래를 불러도 부족하냐.)

先行體言 末音이 開音節일 때 ‘-를’을 後接하는 경우도 있지만 原語民의 발화에서는 위의 예와 같이 거의 ‘-리’을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다.

- (28) a. 부에난 집에 서답을 흥여십주.
(부화가 난 김에 빨래를 하였습니다.)
b. 밧을 잘단 지친ㄹ라 물을 홀터 먹엄저.
(밭을 갈다가 지쳤는지 물을 마구 먹는다.)
c. 세우리를 비어단 먹젠 보난.
(부추를 베어다가 먹으려 하니.)
d. 내 너를 ㄷ랑 살암시난…
(내가 너를 데리고 살고 있으니…)

위의 예문은 공통어에서와 같이 先行體言 末音이 開音節인 경우에 後接하는 대격은 ‘-를’을 표시하고 閉音節인 경우에는 ‘-을’을 표시하고 있다.

18) 李基白: “國語助詞의 史的研究”, 어문논총 9·10, pp.40~44.

또한 다음 예문과 같이 본도 방언의 對格語尾의 생략 현상은 더욱 두드러진 현상으로 볼 수 있다.

- (29) a. 물 데우렌 행 모옥ㅎ키여.
(물을 데우라 하여 목욕하겠다.)
b. 밧디강 왕 밧 시치라.
(밧에 갔다 와서 밧을 씻어라.)
c. 올레 검질 메염저.
(올레에 검불을 메고 있다.)
d. 정지강 사밭 가정 오라.
(부엌에 가서 사밭(沙鉢)을 갖고 오너라.)
e. 돌일 ㅎ젠 ㅎ민 못견디주.
(돌일을 하려고 하면 못견딘다.)
- (30) a. 밥 먹읍서.
(밥을 먹으십시오.)
b. 밧 잘암수다.
(밧을 잘고 있습니다.)
c. 낭 지엄 오라.
(나무를 지고 오너라.)
d. 그 개 시머 줍서.
(그 개를 붙들어 주십시오.)
- (31) a. 장개 가젠 돈 벌엄수다.
(장가를 가려고 돈을 벌고 있습니다.)
b. 공부 ㅎ민 지 좋주.
(공부를 하면 저가 좋지.)

위의 예문들에서 (29)인 경우는 體言末音이 ‘-ㄹ’로 끝나는 NP로 ‘-을’이 올 수 있는 조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原語民의 發話에서는 ‘-을’을 생략하여 쓰고 있는데 반하여, (30)의 경우는 ‘밥을, 밧을, 낭을, 개를’로도 발화되고 있어 格語尾를 表示하지 않은 경우와 表示하는 경우에 두루 쓰이고 있으나 원어민들은 意味資質을 辨別하여 쓰고 있는 듯하다. 그러므로 (29)의 경우는 생략으로 볼 수 있으나 (30)의 경우는 생략보다는 不定格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해서도 不定格項에서

살펴 보겠다. (31)인 경우는 對格이 動作性을 지닌 NP에 연결되고 VP가 ‘하다, 가다’로 구성되어 있어 생략된 형태로 보겠다. 이것은 대격이 대상물이나 目標指示의 機能으로 볼 때 行爲의 뚜렷한 目標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리고 對格으로 ‘-ㄴ’을 混用하여 쓰이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공통어에서도 빈번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대격의 주제화에 의한 것으로 본다.

(32) a. 이젠 밥은 먹어사키여.

(이제는 밥을 먹어야겠다.)

b. 이젠 밥을 먹어사키여.

(33) a. 선조 산은 돌아방 가사주.

(선조의 墓를 돌아보고 가야지.)

b. 선조 산을 돌아방 가사주.

(34) a. 그 사름이엔 케진 들구 잡아지카.

(그 사람이라고 고기를 많이 잡아질까?)

b. 그 사름이엔 케길 들구 잡아지카.

(35) a. 마췌 질러사 돈뵈주.

(마소를 길러야 돈을 마련하지.)

b. 마췌 질러사 돈뵈주.

위의 (32)~(35)의 예문 a와 b에서는 어떤 杼앙스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32) a는 ‘밥’ 이외의 어떤 다른 음식을 먹어 왔었음을 암시하고 있는데 반하여 b는 ‘밥’을 먹어야 할 시간이 되었음으로 식사인 ‘밥’을 먹어야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33), (34), (35) 역시 같은 논리로 해석이 가능하다.

對格에 있어서의 重出現象도 주격의 重출 현상과 마찬가지로 본도 방언에서 활발하게 쓰이고 있다. 이것은 與格의 대격화 및 屬格의 대격화에 의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36) a. 저 차롱을 날 ㅁ저드라.

(저 채롱을 나에게 가져달라.)

b. 저 차롱을 나신디 ㅁ저드라

- (37) a. 이 강생일 질 주주.
 (이 강아지를 너에게 주마.)
 b. 이 강생일 지신디 주주.
- (38) a. 몰랑훈 떡을 할망을 주라.
 (물렁한 떡을 할머니에게 드려라.)
 b. 몰랑훈 떡을 할망신디 주라.
- (39) a. 이 촘을 쉐 주젠ㅎ연 보난.
 (이 꼴을 소에게 주려고 보니깐.)
 b. 이 촘을 쉐신디 주젠ㅎ연 보난.

(36)~(39)는 여격의 대격화에 의한 것으로, 특징적인 것은 대격화 되는 NP가 [+有情]이어야 한다는 점과 VP가 [+奉仕]의 意味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 (40) a. 쉐 훈 바릴 사주ㅎ연 가난.
 (한 바리의 소를 사려고 하여 가니까는.)
 b. 훈 바리의 쉐 사주ㅎ연 가난.
- (41) a. 책을 여나몬 권을 빌려드렌 햐저.
 (여남은 권의 책을 빌려 달라고 한다.)
 b. 여나몬 권의 책을 빌려드렌 햐저.
- (42) a. 광목을 세 필을 해사 복치매를 맨들주.
 (세 필의 광목을 해야 복치매를 만든다.)
 b. 세 필의 광목을 해사 복치매를 맨들주.

(40)~(42)는 속격의 대격화에 의한 결과로 대부분 ‘관형사+단위명사와 그것과 관련된 명사’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음이 주목할 만하다.

2.2.3 屬 格

屬格의 機能은 體言앞에 놓여 관형어의 구실을 하는 것으로 중세 국어에서는 ‘-의, -의’가 모음조화 규칙에 따라 구별되어 쓰여 오다가 標準語 制定後에 ‘-의’만 남게 되었다.

본도 방언에서의 屬格語尾로는 ‘-의, 이, 네’가 다양하게 쓰이고 있으며 屬格의 機能을 지닌 ‘스, 흥’의 형태소도 병용하고 있다. 본도 방언에서의 속격의 특이한 형태는 ‘-네’의 쓰임을 들 수 있으며, ‘의>이’의 발달을 암시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 (43) a. 집의 밧은 어디 이서.
 (宅의 밧은 어디 있는가?)
 b. 고망의 혹은 파내 사주.
 (구멍의 혹은 파내야 한다.)
 c. 돌우의 서답 드리라.
 (돌 위의 빨래를 걸어라.)
 d. 이견 풀애기의 솜씨여.
 (이것은 딸 아이의 솜씨다.)

- (44) a. 가의 집이 강 보라게.
 (그 아이의 집에 가서 보렴.)
 b. 느의 집이 사롬 시냐.
 (너의 집에 사람 있느냐?)
 c. 야의 누님 시집 감수께.
 (이 아이의 누님 시집 갑니다.)
 d. 자의 올렌 어디고.
 (저 아이의 올레는 어디냐.)

위의 문장 (43)과 (44)는 ‘-이’로도 흔히 발화되고 있는 것으로 ‘-의, -이’가 混用되고 있으나 ‘-이’의 屬格形이 우세하다. 이것은 ‘의>-이’의 발달을 암시하는 예로 볼 수 있다.¹⁹⁾ 또한 여기서 볼 수 있는 점은 屬格語尾를 사이에 둔 NP관

19) 李基白: op.cit., pp.45~46.

이에 의하면 고려속요〈動動〉중에 나오는 “늑미브를 즘을 디너 나샷다.”에서 볼 수 있는 ‘늑미’는 ‘늑+의’로 분석할 수 있으나 ‘의’를 직능상 주격 관형사로 다루어야 한다고 했음.

계는 ‘所屬’이나 ‘所有’ 나아가 ‘關係’ 및 ‘所産, 所在’라는 意味와 統合關係에 있다는 것과 [+所有]의 意味資質을 갖는 ‘-의’는 대체로 생략된 형태로 쓰이고 있다는 점이다. (예: 나책, 느책, 아시집 등)이 생략의 문제는 不定格項에서 또 다시 언급하겠다.

본도 방언의 특이한 형태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속격어미 ‘-네’는 複數의 의미를 內包하고 있음과 동시에 ‘-의’와 換置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찍부터 속격어미로 지적되어 온 바가 있다.²⁰⁾ 그런데 ‘-의’가 先行體言과 연결이 隨意的이라 한다면 ‘-네’에 연결되는 先行體言은 [+사람]의 意味資質을 가진 NP (단 1인칭 대명사는 제외)라는 제약이 있을뿐 아니라 後行하는 NP도 [保有]의 意味資質을 갖는 것이라야 한다. 그러므로 예문 (43)은 속격어미 ‘네’로 換置가 불가능하지만 (44)은 置換이 가능하게 된다. 즉,

- (45) a. *집네 밝은 어디 이서,
 b. *고망네 흑을 파내사주.
 c. *돌우네 서답 드리라.
 d. *꽃애기네 숨씨여.

등은 非文이 되어 두 NP간의 統辭形式으로 결합될 수 없고 發話하는 경우도 없다. 그렇지만 예문 (44)의 경우는,

- (46) a. 가네 집이 강 보라게.
 b. 느네 집이 사름시냐.
 c. 야네 누님 시집 감수께.
 d. 자네 올렌 어디고.

와 같이 換置될 수 있어 ‘-의’와 병용하여 쓸 수 있는 것이다.

본도 방언에서는 ‘-스(-s-), -ㅎ(-h-)’이 또한 속격의 기능을 지니고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데, 이는 ‘ㅎ’이 ‘스’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음과 ‘ㅎ’과 ‘스’이 중세국어에 對應하여 쓰였다²¹⁾는 점으로 보아 ‘스’과 ‘ㅎ’의 속격 기능은

20) 李崇寧: op.cit. pp.30 ~ 31. 姜根保(1977): op.cit. pp.11 ~ 13.

21) 송상조: “ ‘ㅎ’ 介入에 관한 考察 ” (1982) 제주대학교교육대학원 논문집 pp.30 ~ 31

중세 국어의 영향을 받아 지금까지 본도 방언에 남아 있는 특이한 형태라 보아 진다.
 ‘-스과 -ㅎ’이 후접되는 환경은 「有聲音과 有聲音」 또는 「有聲音과 無聲音」 사
 이에서 쓰이고 있으나 어느 형태가 介在되느냐는 話者의 隨意的인 發話에 基因되는 듯
 하나 言衆 사이에서는 ‘ㅎ’이 개재된 有氣音으로 실현하는 경우가 많다.

- (47) a. 동넛 방상 모다들언.
 (동네 친척이 모여들어서.)
 ⇒ 동네 광상.
 b. 상까지 이시냐 좃아보라.
 (항까지 있는가 찾아보라.)
 ⇒ 상카지.
 c. ㄱ랫 방석 ㅎ져오라.
 (맷돌 방석 가져 오라.)
 ⇒ ㄱ래 광석.
 d. 새시방 찻이 강 보게.
 (신랑 집에 가서 보자.)
 ⇒ 새시방 칩.

이외에 ‘ㄱ래 쫓룩 ⇒ ㄱ래 좃룩(맷돌자루)’ ‘비짜락 ⇒ 비춱락(빗자루)’ ‘그루
 팔, 나물키름, 낭토막, 우영팔, 오늘 처녀’ 등.

2.2.4 處 格

處格語尾는 體言 아래 붙어서 그 體言으로 하여금 處所上으로 用言을 수식하게 하는
 데, 그 내용에 따라 與格, 方向格의 기능을 하기도 한다. 중세 국어에서는 ‘-애, -에
 -예, -익, -의’ 등이 모음조화 규칙에 의해 쓰이다가 16세기에 들면서 규칙이 문란
 해져 ‘-익’와 ‘-에’가 混用되다가 17세기에 이르러 ‘-애’는 소멸되고 ‘-에’
 와 ‘-의’가 별 구별없이 쓰여졌으며 19세기에 와서는 ‘-에’가 가장 우세하게 쓰
 이다가 ‘-의’ 형태도 소멸되고 ‘-에’ 형태로만 統合되었다. 그리고 定處, 方向,
 比較 등을 나타내었던 처격어미로는 중세 국어에 ‘-애서, -에서, -익서, -의서’
 등으로 쓰이다가 근세에 와서 ‘-에서’로 통일되어 쓰이고 있다.

본도 방언에서는 이와 같은 기능을 갖는 처격어미로 ‘-에, -이, -에서, -이서, -디, -디서, -레, -드레’ 등 다양하게 쓰이고 있으며, 본도 전역에 걸쳐 ‘-에’가 가장 광범하게 쓰이고 있지만 ‘-의>이’로 발달했다고 생각되는 ‘-이’도 광범하여 중세 국어의 ‘우희(上), 집의(家), 밖외(外), 결의(傍)’ 등과 같이 특수한 경우에 쓰였던 처격 ‘-의’가 변모하여 형성된 것으로 짐작되며 속격 기능을 지닌 ‘-스’과 어울려 복합격을 형성하는 경우도 많다.

- (48) a. 방에 이불 쫄라.
 (방에 이불을 쫄라.)
 b. 지주에 삼현이 설립된 뻔디.
 (제주에 삼현이 설치된 때인데.)
 c. 바당에 나불 일엄시냐.
 (바다에 파도가 일고 있느냐.)
 d. 차롱에 다망 으져 오라.
 (채롱에 담아 갖고 오라.)
- (49) a. 밤이 줌 자꼭 낮이 공뵤흐라.
 (밤에 잠자고 낮에 공부하라.)
 b. 그 사름 주낙이 온다.
 (그 사람 저녁에 온다.)
 c. 무사 동새베기 일어남수파.
 (어째서 동새벽에 일어나십니까?)
 d. 초어스름이 돌 뜬다.
 (어두워질 무렵에 달 뜬다.)

위의 예문 (48)에서는 ‘-에’, (49)에서는 ‘-이’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先行體言이 空間的 位置 [+장소]와 時間的 位置 [+時間]의 意味資質을 지녔을 때 한하여 쓰이고 있다. 그런데 예문 (49)는 ‘-에’로 代置하여 쓰는 경우도 있으나 (48)은 ‘-이’로 代置하여 發話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경우는 다음 예문에서도 볼 수 있다.

- (50) a. 집이 사름 시냐.
 b. 집아피 이시라.
 (집앞에 있어라.)

- (51) a. 불에 그시리다.
 (불로 태워다.)
 b. ㄱ래에 ㄱ랍저.
 (맷돌로 갈고 있다.)
 c. 노름에 망ㅎ엿주.
 (노름으로 망하엿지.)
 d. ㅂ름에 불럿저.
 (바람에 불렀다.)

위의 (50)은 NP가 [+場所]의 기능을 갖고 있는 점은 (48)과 같은 예문이나 ‘-에’로 대체하여 쓰이고도 있으며 (51)의 경우는 [+道具], [+原因]을 나타내고 있는데 전혀 ‘-이’로 대체할 수 없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예문 (49)와 (50)은 중세 국어에서 특수 처격어미 ‘-의, -위’로 표기되었고 본도 방언에서는 ‘-이’로 존재하고 있어 ‘-이’는 ‘-의’ 또는 ‘-위’의 발달된 형태라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처격어미 ‘-이, -에’에 後置詞 ‘-서’가 연결되어 空間的 始發과 時間的 始發을 드러내며 滯留하는 場所를 나타내기도 하여 ‘-이, -에’와는 다른 기능을 하고 있다.

- (52) a. 나는 집에서 오고 삼촌은 장에서 왔저.
 b. 세베기서 어디 감시니.
 c. 고지서²²⁾ 일ㅎ단 보난 오꺏 어둑언.
 (곶에서 일하다 보니 그만 어두어서.)

이는 본도 방언만의 특징이 아닌 것이며 공통어에서도 이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²³⁾

본도 방언에서의 특이한 형태라 보는 처격어미 ‘-디’의 쓰임이 다양한데 이에 대한 것은 康貞姬(1980)에 의하여 자세히 다루어졌다. 이 처격 ‘-디’는 NP 末音이 /t/系音이나 아니면 通時的 觀點에서 볼 때 /h/音을 가지고 있었던 ‘우ㅎ, 뒤ㅎ’ 등에 연결되는데 空間的 場所를 나타내 주고 있다. 이는 처격 ‘-디’의 발달 과정이 ‘ㄷ’라는 原始抽象名詞라는 어휘적 요소가 문법적 요소로 변모된 것이기 때문에 先行하는 체언 NP는 [+場所]의 意味資質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 ‘-디’는

22) ‘곶’이란 깊숙한 산속의 수풀을 가리킴.

23) 申昌淳: “國語助詞의 研究(Ⅱ)”, 국어국문학71, pp.22.

‘이, 그, 저’와 같은 指示代名詞에 後接하거나 VP가 方向的 意味를 갖고 있을 때는 向格의 기능도 한다.

- (53) a. 솟디 쌀노양 밥혀라.
(솥에 쌀을 넣어 밥을 지어라.)
b. 낭우티 걸터 아잔.
(나무 위에 걸터 앉아서.)
c. 뒤티 보지 말라.
(뒤에 보지 말라.)

- (54) a. 밧디 감수다.
(밭에 갑니다.)
b. 개꿏디 가당 보난.
(해변가에 가다가 보니.)

- (55) a. 이디 아즈라.
(이곳에 앉아라.)
b. 저디 살암찌.
c. 그디 보라.

위의 (53)은 공간적 장소를 나타내고 있으나, (54), (55)는 向格의 의미도 함께 보여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처격 ‘-디’에 후치사 ‘-서’가 연결되어 ‘-이서’와 같은 기능을 하기도 하고 강조의 뜻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 (56) a. 밧디서 일햐수다.
(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b. 이디서 놀암시라.
(이곳에서 놀고 있어라.)
c. 솟디서 물 데우라.
(솥에서 물을 덥혀라.)
d. 낭우티서 무시저 햐시니.
(나무 위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선행하는 NP는 ‘-디’와 같은 音韻的 조건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디’는 선행 NP가 [+有情]과 결합할 때에는 與格의 기능으로 빈번하게 바뀌어 사용되고 있음이 발견된다.²⁴⁾

- (57) a. 아시신디 강 보라.
 (아우에게 가서 봐라.)
 b. 성안티 이실겨여.
 (형에게 있을 것이다.)
 c. 삼촌신디 물어 보양 오라.
 (삼촌에게 여쭙어 보고 오라.)
 d. 쉼신디 찰주라.
 (소에게 풀을 줘라.)

다음으로 처격어미 형태인 ‘-드레’의 쓰임을 살펴 보겠다. 이는 與格, 處格, 向格 등의 여러 기능으로 通用되는 격형태의 하나에 속하는 것으로, 方言的 독자성이 있음을 姜根保(1978)에 의하여 이미 자세히 밝힌 바 있다. 이 ‘-드레’는 事物代名詞인 NP에 연결되고 있느냐, 아니면 人稱代名詞에 연결되었느냐, 또는 그 밖의 NP에 연결되었느냐에 따라 그 기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58)의 예문처럼 ‘이, 그, 저’의 指示性 事物代名詞에 후접되는 경우에는 處格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만 (59)와 같이 인칭대명사와 연결될 때에는 與格의 기능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밖의 NP에 연결되면 向格의 기능으로 사용되고 있다.

- (58) a. 이것드레 비와 불라.
 (이것에 비워 버려라.)
 b. 저것드레 담으카.
 (저것에 담을까?)

이때의 NP는 [+充當], [-充當]의 意味를 지니고 있는 ‘담다’, ‘비우다’, ‘넣다’ 등에 의하여 제약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4) 康貞姬(1980), pp.84 ~ 86.

- (59) a. 가이드레 ㄱ라블라.
 (그 아이에게 말하여 버려라.)
 b. 느드레 주느냐?
 (너에게 줄까?)
 c. 누게드레 ㄱ르코?
 (누구에게 말할까?)
 d. 아무드레라도 쟁 놔두라.
 (아무에게라도 주어서 놓아두라.)

위의 (59)와 같이 인칭대명사에 후접하는 ‘-드레’는 앞에서 설명한 (57)의 경우에 쓰이는 ‘-디’ 또는 ‘-신디’와도 대치할 수 있어 공통어의 ‘-에게’와 동일한 기능을 가진 여격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 (60) a. 독이 올레드레 돌암저.
 (닭이 올래 쪽으로 달아나고 있다.)
 b. 동드레 가카 서러레 가카.
 (동쪽으로 갈까 서쪽으로 갈까.)
 c. 무쉬가 산드레 올랍저.
 (마소가 산쪽으로 올라 간다.)
 d. 일 무치민 집드레 오라.
 (일이 끝나면 집으로 오라.)

(60)의 경우는 행동이 指向하는 目標를 나타내는 向格의 기능을 갖고 있는데 이때의 VP는 動作動詞라야 하는 제약이 따르고 있다.

이 ‘-드레’와 같은 형태로 ‘-레’가 또한 함께 쓰이고 있으며, 처격으로서의 이 ‘-레’가 普通名詞에 연결되는 선행 체언은 몇 개의 어휘에 불과하여 본도 방언의 특징적인 일면을 보여주는 반면²⁵⁾ ‘-레’가 지시 대명사에 연결되면 ‘-디’와 같은 기능을 갖게 되어 方向性的의 意味를 갖는다. 이때에 統合되는 VP는 상태동사이거나 지속성의 특질을 지닌 동사에서는 지배되지 않는 제약을 받고 있음을 다음 예에서 알 수 있다.

25) 李崇寧 (1978), pp.36 ~ 44에 詳論하고 있음.

- (61) a. 이레 아지라.
 (이쪽으로 앉아라.)
 b. 그레 걸라.
 (그쪽으로 걸어라.)
- (62) a. *이레 이수다.
 ⇒ 이더 이수다.
 b. *저레 살암쩌.
 ⇒ 저디 살암쩌.

(61)의 예문은 혼히는 쓰이는 발화이지만 (62)의 경우는 ‘-레’가 쓰이지 않고 다만 ‘-디’가 제약없이 발화되고 있다. 이런 점으로 보아 본도 방언의 처격 ‘-디’는 매우 隨意的으로 쓰이고 있으나 ‘-레’는 제약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송녕(1978)에 의하면 본도 방언에 ‘-日’의 어휘로 ‘흐루, 흐를’, ‘粉’의 의미로 ‘ㄱ루와 ㄱ를’의 쌍형이 존재하여 ‘흐를, ㄱ를’의 처격어미로 ‘-레’가 있어 고대 국어의 발달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준다고 지적한 바가 있듯이, 이 ‘-레’는 처격어미로서의 기능이 매우 한정되고 있으며 현대 原語民 사이에서는 거의 ‘-에’로 대체하여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P가 ‘가다, 오다’ 따위의 방향을 나타내는 동사와 연결될 때에는 방향격의 기능을 하고 있음도 발견되어 ‘-드레’와도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

- (63) a. 경 걸엉 흐루레 멧릴 가젠.
 (그렇게 걸어서 하루에 몇 리를 가려고.)
 b. 경 걸엉 흐루에 멧릴 가젠.
- (64) a. ㄱ루레 물 비왕 버무리라.
 (가루에 물을 비워 반죽하라.)
 b. ㄱ루에 물 비왕 버무리라.
- (65) a. 화리레 불잉걸 ㄹ저당 노라.
 (화루에 잉걸불 가져다 놓아라.)
 b. 화리에 불잉걸 ㄹ저당 노라.
- (66) a. 시리레 비우라.
 b. 시리에 비우라.

- (67) a. 찰리레 비우라.
 b. 찰리에 비우라.
- (68) a. 올레레 왓십서.
 b. 올레에 왓십서.
- (69) a. 호교레 그룹서.
 b. 호교에 그룹서.

위의 예문 중 (63) ~ (67)은 처소격어미로 쓰이고 있으나 (68), (69)는 VP의 제약에 의하여 방향격으로 쓰였다. 그리고 (63)을 제외하고는 ‘-드레’로도 대체되어 발화되고 있다.

처격어미 ‘-이, -의, -디’ 등은 ‘스’와 결합하여 ‘처소’와 所有의 二重의 기능을 담당하기도 한다. 즉,

- (70) a. 집윗 독이우파.
 (집에의 닭입니까?)
- b. 아핏넨 흥상흐르지 안흠주.
 (앞에의 내(川)는 항상 흐르지 않지요.)
- c. 앞 오름윗 낭은 너무 흠어서.
 (앞 산에의 나무는 너무 굵어서.)
- d. 솟딛물로 몸 굶무라.
 (솔에의 물로 목욕하라.)

등은 [+處所]와 [+保有]의 意味資質을 함께 가지고 있는 예이다.

2.2.5 造 格

造格語尾는 動詞와 結合하여 ‘行爲나 狀態의 道具’, ‘行爲의 方向’, ‘資格, 手段과 方法을 표시하는데 쓰이는 것으로 중세 국어에는 ‘-으로, -으로’가 쓰였다.

본도 방언에서도 造格語尾의 형태로 ‘-으로, -로’가 體言末音이 開音節이나 閉音節이냐에 따라 구분하여 쓰이고 있어 공통어와 크게 다른점이 없다.

- (71) a. 콩으로 메줄 쑤제 햏여도.
 (콩으로 메주를 쑤려 햏여도.)
 b. 무건 톱으로 췘라도 쌘시민.
 (무딘 톱으로 췘라도 짜르고 있으면.)
 c. 호미로 밭에 염 비라.
 (낫으로 밭 구석 자리를 베라.)
 d. 낭으로 불지드라.
 (나무로 불 지퍼라.)

(71)은 道具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들인데 이때에 선행하는 體言은 언제나 [+具體物, +普通]의 意味資質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72) a. 증조부가 훈장으로 이실 뻔디.
 (증조부가 훈장으로 있을 뻔디.)
 b. 지주목사로 왕 당오백 절 오백을 부수니.
 (제주목사로 와서 당오백 절(寺) 오백을 부수니.)
 c. 그것도 어디 사름으로 난 것가?
 (그것도 어디 사름으로 태어났다고 하겠는가?)
 d. 날 애기로 보미우파?
 (나를 어린 아이로 보고 있습니까?)

(72)와 같이 資格을 표시할 때에는 선행 체언인 NP는 [+사람]의 자질을 갖고 있어 ‘地位, 身分, 資格’ 중 어느 하나의 의미 자질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 (73) a. 산으로 갈 뻔 양석이 똥똥 햏여사 햏다.
 (산으로 갈 뻔는 식량이 단단하여야 한다.)
 b. 신촌 바당으로 가 젠 보난 절 이럼서라.
 (신촌 바다에 가려고 보니 파도가 일고 있더라.)
 c. 서화리로 호영 송당 갑주.
 (細花里로 햏여 송당을 갑시다.)
 d. 그 밭 디 이신 거 집으로 올 때 랑 햏 정 오라.
 (그 밭에 있는 것을 집으로 올 때는 갖고 오너라.)

(73)의 예는 方向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先行하는 體言이 [+具體物, +場所]의 意味資質을 갖고 있으며 VP는 ‘가다, 오다, 다니다’. 따위의 動作動詞의 제약이 따르고 있다. 물론 方向性에는 어떤 기준점을 중심으로 하여 出發點과 到着點이 存在하여 그 表現形式들이 달리 할 수도 있으나(-부터, -레, -드레, -까지 등) 本項에서는 論外로 하였다.

그리고 材料를 表示하기 위하여 ‘을/리’+가지고(後置詞)’로 造格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 (74) a. 쉰 밥을 가정 쉰다리²⁶⁾ 맨들라.
 (쉰 밥으로 쉰다리를 만들라.)
 b. 모밀 ㄱ를 가정 조배기 맨들라.
 (메밀 가루로 수제비를 만들라.)

(74)와 같은 예들도 본도 방언만의 특징이 아니라 공통어에서도 두루 쓰이고 있다는 점에서 중부 방언과의 交接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自生的인 발달인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볼 때 본도 방언에 나타나는 조격어미는 방언적 특징을 지니고 있지 않으며 공통어와 비슷하게 쓰이고 있다 할 수 있다.

2.2.6 共同格

중세 국어에 共同格 형태로는 ‘-와, -과’가 가장 많이 쓰였으며 ‘-여, -이여’도 함께 쓰였다. 그런데 본도 방언에 나타나는 共同格語尾도 이 중세 국어와 대칭될 수 있는 형태인 ‘-광, -왕’과 ‘-영, -이영’이 쓰이고 있으며 공동격 기능을 지닌 ‘-랑’이 있다.

- (75) a. 떡광 밥을 먹으난 배가 봉그릇 ㅎ다.
 (떡과 밥을 먹으니 배가 불룩하다.)
 b. 그 집이 쉼왕 물이 만ㅎ주.
 (그 집에 소와 말이 많다.)

26) ‘쉰다리’란 쉰밥과 누룩으로 담가 감주보다 덜 달고 새콤진 맛이 있게 한 여름의 음료를 말함.

c. 부릉이²⁷⁾왕 밧갈쉐가 쥬레 붙엄저.

(부릉이와 밧가는 소가 싸움이 붙었다.)

(75)에 쓰이는 ‘-광, -왕’은 공통어의 ‘-과, -와’와 같은 연결 조건에 의해 후행하고 있으며 ‘-광, -왕’이 형태상 차이를 보이는 것은 본도 방언의 특이한 형태 소인 /ㄱ/이 接尾되어 형성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고 있다. 보다 특징적이라면 ‘-영, -이영’이 原語民 사이에 많은 형태로 발화되고 있어 중세 국어에서 공동격으로 쓰이던 ‘-여, -이여’의 형태²⁸⁾에 /ㄱ/이 接尾된 사실이다. 이렇게 볼 때 ‘-영, -이영’의 형태는 古形이 본도 방언에 維持된 격형태 중에 하나라 볼 수 있을 것이다.

(76) a. 집이영 밧이영 풀아 먹어부난.

(집과 밧을 팔아 먹고 나니.)

b. 가이영 나영 놀래 가가.

(그 아이와 내가 놀러 갈까?)

c. 성이영 아시영 다 불르라.

(형과 아우를 다 불러라.)

d. 췌기 나끄젠 흐민 배영 낙시영 이서야주.

(고기를 낚으려면 배와 낚시가 있어야지.)

그리고 이 공동격어미와 연결되는 VP가 比較라든지 差等の 意味를 지니는 ‘같다, 비슷하다’ 등과 연결되면 비교격의 기능을 지니게 된다.

(77) a. 그 사람 나영 ㄱ트카부덴.

(그 사람이 나와 같겠느냐.)

b. 성이영 아시영 ㄱ똥흔게.

(형과 아우가 키가 똑같다.)

c. 어멍이영 아방이영 누게가 좋으니.

(어머니와 아버지 중 누가 더 좋으냐.)

27) ‘부릉이’란 거세하기 전의 어린 소를 말함.

28) 李基白: op.cit., 재인용

① 德이며 福이라 흐는 나스라 오소이다(동동)

② 山이여 미히여 千里外에 處容아비를 어여려거져(처용가)

③ 一千이여 一萬이여 無數히 얻고져 흐샤도(월석 1:27)

④ 沙門이 드외야 나지여 바미여 修行하야(석보 24:30)

- d. 물광 쉼왕 어느게 더 비싸코.
(말과 소 중 어느 게 더 비싸냐?)

본도 방언에서는 위와 같은 격어미 말고도 공동격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는 ‘-랑’이 발화되고 있다. 이 ‘-랑’은 일반적으로 絶對格語尾로 쓰이는 것으로 15세기에 ‘-리란, -이란’의 발달된 형태가 아닌가 한다.

- (78) a. 늘랑 이더 시라.
(너는 여기 있어라.)
b. 이걸랑 놔두고 저걸랑 느 먹으라.
(79) a. 느랑 나랑 바당에 빠정 죽어 불카.
(너하고 나하고 바다에 빠져 죽어 버릴까?)
b. 아방이랑 어멍이랑 어디 가시니.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는 어디 갔느냐?)

위의 (78)의 경우는 절대격으로 쓰인 것이고 (79)의 경우는 공동격어미의 기능을 하고 있어 중세 국어의 문헌²⁹⁾에 나타나오는 형태와 관련성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2.2.7 呼 格

중세 국어에서 쓰인 呼格語尾로는 ‘-아, -야’, ‘-여, -이여’, ‘-하’ 등이 다양한 형태가 있어 ‘-아’는 체언 말음이 모음이거나 자음이거나 간에 두루 연결되어 쓰였으나 ‘-야’는 체언 말음이 모음일 때 한하여 연결되었다. ‘-하’는 敬語의 형태로 쓰였던 호격어미지만 16세기에 이미 소멸되었다.³⁰⁾

본도 방언에서의 호격어미로는 ‘-아, -야, -마 씸’ 등이 쓰이고 있어 先行體言末音이 자음이면 ‘-아’, 모음이면 ‘-야’, 그리고 敬語의 형태로 ‘-마 씸’이 사용되고 있다.

29) “멀위랑 득래랑 먹고” (청산별곡)

“느므자기 구조개랑 먹고” (청산별곡)

30) 李基白: op.cit., p.66

- (80) a. 애야 그걸 이레 **우**경 오라.
 (이 아이야 그것을 이리 가지고 오너라.)
 b. 나 조카야 울지 말라.
 (나의 조카야 울지 말라.)
 c. 인숙아 아방시냐.
 (인숙아 아버지 계시냐?)
 d. 인철아 이레 오라 보저.
 (인철아 이쪽으로 오너라 보게.)

(80)의 예와 같이 이 ‘-아, -야’는 선행체언이 [+有情]과[-尊待]의 意味 資質을 지니고 있을 때 사용되고 있으며, 다음 예문과 같이 간혹 동물을 부를 때도 연결 되는 경우가 있다.

- (81) 이 놈이 왜야 제기 글라.
 (이 놈이 소야 빨리 가자.)

또한 原語民의 發話 중에는 체언 말음이 자음으로 끝나고 있음에도 ‘-아’를 쓰지 않고 ‘-이야’로 발화하는 경우도 발견된다. (예 : 인철이야, 인숙이야, 인생이야 등)

敬語의 형태로 쓰이고 있는 呼格語尾 ‘-마씀’ 또는 異形態 ‘-마썸’은 본도 방언의 특징적인 語形으로 用言의 語末語尾나 體言에 後行하여 尊敬의 뜻을 표시한다.³¹⁾ 본攷에서는 呼格語尾의 기능으로 쓰이는 ‘-마씀’의 형태에 한하여 論하려 하며 그외는 論外로 한다.

- (82) a. 삼촌마씀, 그말은너무 심혼 것 굴수다.
 (삼촌님아, 그 말은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b. 성마씀, 촌촌이 그룹서
 (형님아 천천히 걸어갑시다)
 c. 아지방마씀 고적³²⁾ 홉주
 (아지바니요 고적합니다)

31) 姜根保 : “濟州島方言語彙考(二)”국문학보 제7집(1975).

32) ‘고적’이란 일가에 장사난 때에 친척끼리 만들어 가는 부조떡을 말한다.

d. 사돈님마씀 잘 살아접수짜.

(사돈님아 잘 살아가고 제십니까?)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행 체언 NP가 [+有情, +尊待]의 意味資質에 한하여 쓰이고 있다.

2.2.8 不 定 格

여기서 論하려는 不定格은 安秉禧³³⁾에 의하여 提起된 用語로, 체언의 曲用에 있어서 曲用語尾의 表示로 文法的 關係라든가 統辭論的 構成을 갖는 게 보통이나 曲用語尾 없이 나타나는 體言 즉 基本型만으로 文法的, 統辭的 機能을 가지는 경우에 이를 간단히 格語尾의 省略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실상은 曲用語尾의 有無에 따라 그 意味의 辨別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強調와 統合關係의 명확성까지 작용하고 있다. 이에 無表示의 格을 不定格으로 보려는 것이다. 사실상 基本型이라 하지만 확고하게 文法的 意義가 規定되어 있지 못하고 더욱 統合關係에 나타나는 체언은 반드시 어떤 資格을 가지고 있으므로 基本型이라 하기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 문제는 G. J. Ramstedt³⁴⁾에서 비롯되는데, 主格에 있어 格語尾가 나타나는 문장은 특별한 主述關係를 표시하고 있는 반면에 格語尾를 缺한 體言과 연결되는 경우를 一般的인 統合關係에 불과하다고 볼 때 本攷의 論議는 타당성을 지니게 될 것이며 이 論理는 屬格과 對格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에, 앞에서 제기되었던 본도 방언에서의 主格과 屬格, 對格에 두루 생략되는 현상을 생략보다는 不定格으로 設定하여 논의하려 한다.

우선 主格부터 살펴보겠다. 이미 主格項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主格語尾가 나타나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와의 意味上 차이가 드러난다.

33) 安秉禧: “不安格 定立을 위하여” (동아문화 6), 서울대, 1966.
pp. 222 ~ 223

34) G. J. Ramstedt: A Korean Grammar, 1939. Helsinki.

- (83) a. 그 사람 ϕ 보아신가.
 (그 사람 보았는가.)
 b. 그 사람이 보아신가.
 (그 사람이 보았는가.)
- (84) a. 나 ϕ 강오주.
 (나 갔다 오지.)
 b. 나가 강 오주.
 (나가 갔다 오지.)

문장 (83)은 비밀스러운 일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그 비밀이 다른 사람에게 탄로가 났을 까 의심하는 상황의 발화다. (83 a)의 경우, 화자는 그저 막연하게 혹시나 ‘그 사람’이 보지나 않았을까 하는, 의심을 하면서도 ‘꼭 보았을 것이다’는 확증이 서지 않은 상태의 발화라고 한다면 (83 b)는 ‘그 사람’이 보았다는 확증이 서는 화자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발화가 된다. ‘그’라는 관형어를 제거하고 보면 그 이상의 차이가 드러나 보인다. 곧 주격어미가 연결되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意味의 辨別을 가능하게 하고 있을 뿐 아니라 主格語尾가 ‘強調’나 ‘判斷’에서 연유된다는 점에서 主格語尾가 들어간 문장이 주격어미를 缺한 문장에 비해 話者의 강한 의지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장 (84)에서도 같은 논리로 설명이 가능하다. 제 3 자에게 (청자도 포함된다) 심부름을 시킨다고 가정할 때 (84 a)는 상대방이 갔다 와 주기를 은근히 기대하면서 發話되는 표현이라 한다면 (84 b)는 상대방을 보낼 것 없이 내가(話者) 직접 갔다 오겠다는 강한 意志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주격어미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動作動詞는 물론이지만 狀態動詞인 경우에도 적용되고 있다.

- (85) a. 고장 ϕ 피었저.
 (꽃 피었다)
 b. 고장이 피었저.
 (꽃이 피었다.)
- (86) a. 나 ϕ 고우냐.
 (나 예쁘냐?)
 b. 나가 고우냐.
 (내가 예쁘냐?)

문장 (85), (86)에서 보듯이 주격어미가 연결된 (85 b), (86 b)는 의미의 전달에 강한 인상을 주는 반면에 主格語尾가 實現되지 않은 (85 a), (86 a)에서는 그저 막연한 사실을 전달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는 주격어미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主述關係가 형성되어 話者의 강한 意志를 보여 주는 반면에 主格語尾를 缺한 문장에서는 一般的인 統合關係만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對格인 경우에 어떻게 統合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 (87) a. ㅁ쉬ϕ 목장의 올려수다.
(마소 목장에 올렸습니다.)
- b. ㅁ썰 목장의 올려수다.
(마소를 목장에 올렸습니다.)
- (88) a. ㅁϕ 먹읍서.
(밥 먹으십시오.)
- b. ㅁ을 먹읍서.
(밥을 먹으십시오.)

(87 a)와 (87 b)의 차이는 화자의 의지와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7 a)에서는 그저 마소를 목장에 올려 보낸 사실을 전달하고 있는데 반하여, (87 b)에서는 마소를 다른 곳에 올려 방목시키는 것이 아니라 목장이라는 지정된 장소를 강조하기 위한 화자의 의지가 내포된 문장이다. 이것 또한 화자의 강한 의지는 다른 요소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대격어미가 실현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린 것으로, 대격어미가 출현된 발화에서는 서술어와 특별한 의미 관계가 성립되는데 반하여, 대격어미가 결한 발화에서는 일반적인 통합관계가 형성되어 의미 전달에 그치고 있다.

(88)에 있어서도 (88 a)는 ‘밥을 먹으라’는 일반적인 의미전달 기능을 갖는데 비해, (88 b)에서는 ‘밥만은 꼭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화자의 강한 의지가 내포되어 있어 청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이다.

屬格인 경우에도 속격어미가 表示되지 않은 문장과 表示된 문장 사이에는 一般的인 統合關係와 特別한 所有關係를 형성하게 되어 意味結合의 緊密度에 차이가 나타난다.

- (89) a. 집 ϕ 독이우짜.
 (집 닭입니까 ?)
 b. 집의 독이우짜.
 (집의 닭입니까 ?)
- (90) a. 아시 ϕ 집 사름 신가 .
 (아우 집에 사람 있는가 ?)
 b. 아시네 집 사름 신가 .
 (아우의 집에 사람 있는가 ?)

(89 a)에서는 집에서 키우고 있는 평범한 닭을 뜻하고 있지만, (89 b)에서는 청자에게 잃어버린 닭이냐고(가정한다면) 물어보는 상황의 발화이다. 즉 속격어미가 缺한 (89 a)에서는 일반적인 통합관계에 불과한 것이 (89 b)에서는 ‘집’과 ‘독’ 사이에 屬格語尾 ‘-의’가 結合되어 두 NP사이의 意味結束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고 있다. 속격 ‘-네’의 경우는 이 사실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즉 (90 a)와 (90 b)를 비교할 때 전자보다는 후자가 더 의미 결속이 단단하게 보이는데 이 이유는 속격 ‘-네’에 있음을 찾아야 할 것이다. 속격의 屬性은 두 NP 사이에 ‘所屬, 所有’라든가 ‘關係, 所産, 所在’의 意味와 緊密하게 통합될 때 비로소 제 구실을 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우리가 어떤 한 사실을 認識하여 主張하는 바는 지금까지 格表示가 없는 형태를 語尾의 省略으로 볼 것이 아니라 解決의 열쇠를 다른 데서 찾고자 不定格을 設定하는 것이며 만약에 格語尾가 생략된 것이라 본다면 格語尾가 생략된 경우와 實現된 경우의 文章上에는 意味上에 차이가 없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本攷에서 보듯이 의미상의 차이 뿐만 아니라 통합관계의 結束度에도 그 차이가 드러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不定格의 設定은 설득력을 얻게 되어지리라 본다.

Ⅲ. 結 論

濟州島方言의 格表示形態中 格語尾에 한정시켜 格語尾一覽을 보이고 그 각각에 대하여 形態論的, 統辭論的, 意味論的, 諸特徵을 살핌과 아울러 NP와 VP 관계까지 구명하려 노력하였다.

필자는 이제까지 선공자의 연구업적 가운데 本島方言을 중심으로 다루어진 업적들이 이 방언만이 지니고 있는 특징만을 기술하려는 태도를 止揚하고, 한 지역의 방언이 그 지역내에서 사용되는 언어 전체를 아래 공통어와 상이한 것은 물론 동일한 언어 사실 까지도 기술 대상으로 포괄하는 입장에서 格語尾를 考察하였다. 이제 고찰된 내용을 요약하여 결론으로 대신한다.

(1) 格語尾를 크게 다음 8가지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즉 主格, 對格, 屬格, 處格, 造格, 共同格, 呼格, 不定格이 그것들로, 下位格은 제외하였다. 여기서 不定格을 설정한 것은 일반적인 통합관계와 특수한 통사관계에 중점을 두어 설명할 때 격생략에 대한 일관성 있는 설명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2) 主格語尾에는 ‘-이, -가, -이서, -에서’ 등이 있었다. 다른 방언에서 조사 보고된 복합형인 ‘-이가’는 찾아 볼수 없었다. 本島方言에서 ‘-이가’ 및 ‘-레’가 있는 것으로 보는 학자도 있었으나, ‘-이’는 선행하는 NP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이제는 化石화된 어휘 요소이기 때문에 문법적 기능을 상실하고 말았으며 ‘-레’로 발화되는 예를 찾아 볼수 없는 것으로 보아 결과적으로 本島方言에는 ‘-이가’ 및 ‘-레’는 없는 셈이다.

主格語尾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으나, 主格語尾가 실현되는 문장과 그렇지 못한 문장과 차이가 드러나 不定格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主格이 실현될 때는 託者의 강한 의지를 내포하고 있다.

本島方言에도 主格重出現象은 빈번히 나타나는데 屬格의 主題化와 與格의 主題化와 對格의 主題化에 의해 생성되고 있다.

(3) 對格語尾에는 공통어에서와 같이 ‘-리, -를, -을’이 쓰이고 있으며 체언 말음이 자음이냐, 모음이냐에 따라 양분된다.

또한 ‘-를, -을’ 대신에 ‘-니, -은’이 실현되기도 하는데 이는 對格의 主題化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對格重出現象도 빈번하여 與格의 主題化에 의해 생성되고 있다. 이때 여격의 주제화에서는 NP는 [+有情]의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속격의 대격화에서는 '관형사+단위명사와 그 명사에 관련된 명사' 사이에 한한 현상으로 보인다.

(4) 屬格語尾에는 '-의, -이, -네'가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의 > -이'의 發達은 先行體言이 [+사람]의 資質을 가질 때 빈번하게 나타나는데, 屬格에 '-의'가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위'도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複數와 屬格의 機能을 지닌 '-네'가 屬格으로 쓰일 때는 NP는 [+사람]의 意味資質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속격 기능을 지닌 '스, 히'은 後行하는 체언의 초성을 된소리 또는 거센소리로 변하게 하고 있다.

(5) 處格語尾에는 '-에, -이, -이서, -디, -디서, -드레'가 있다.

'-에, -이'는 전지역에 걸쳐 광범하게 사용되며 '-이서'는 後置詞 '-서'가 연결된 형태로 '-이'에 대치하여 사용되어 空間的 始發과 時間的 始發을 드러내며 滯留하는 장소의 뜻으로 사용된다. 처격 '-디'는 /t/계, /h/계 말음 뒤에 연결되는 音韻論的 제약이 뒤따르며 '-디' 대신에 後置詞 '-서'가 結合된 '-디서'가 쓰여 '-이서'와 같은 기능을 하기도 하며 強調의 뜻으로도 사용된다.

'-드레'는 與格, 向格, 處格 등 그 기능이 다양하나 處格의 기능을 지니기 위해서는 先行體言은 指示代名詞이어야 하는 制約이 따른다. 한편 국어 方言史에 매우 귀중한 자료의 하나라 보는 '레'는 불과 몇 개의 어휘에 연결되어 쓰이고 있으나 현재 '-에'와 병행하여 사용되고 있다.

(6) 조격어미에는 방언적 특징이 없었으며, 공통어에서와 같이 '-으로, -로'가 있다.

道具의 의미로 사용될 때는 [+具體物] [+보통]의 의미자질을 가지며 방향을 나타낼 때에는 [+구체물]과 [+장소]의 의미자질을 지녀야 한다는 제약 조건이 전제되어야 한다. 자격을 표시하는 경우 先行 NP는 [+사람]의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7) '-광, -왕, -영' 등이 공동격어미로 사용된다. '-광, -왕'은 공통어의 '-과, -와'에 본도 방언이 특이한 형태소인 접미사 /ㄱ/이 연결되어 형성된 것이다. 본도 방언에 특이한 공동격은 '-영, -이영'이 담당하고 있는데 선행체언 말음이 모음이냐 자음이냐에 따라 '-영'과 '-이영'이 실현되며, '-영'이 VP가 비교라든가 차등의 의미를 지닌 서술어에 연결될 때 비교격의 기능을 담당하기도 한다. 이 점은

‘-왕, -광’에도 적용된다.

(8) 呼格語尾 ‘-아, -야’는 공통어와 같이 별다른 특징이 없으나 體言末音이 자음으로 끝날 때에도 ‘-이야’가 발화되기도 하며 [+尊待]의 意味資質을 가진 有情의 NP와 연결될 때 ‘-마쑤, -마쑤’이 호격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이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다.

(9) 安乘禧에 의하여 提起된 不定格을 본도 방언에서도 조심스럽게 設定하여 보았다.

즉, 格語尾가 實現되는 문장과 省略되었다는 문장을 比較해 본 결과 생략되었다는 문장은 格을 表示한 문장과 對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격을 표시한 문장에 비하여 話者의 意志 및 意味結束이 미약하다는 점으로 보아 格을 缺한 문장을 생략으로 볼 것이 아니라 不定格으로 설명되어야 한다고 본다.

參 考 文 獻

- 姜根保： “屬格 ‘-ne’의 研究”，「濟州大學論文集」 8, 제주대학, 1977.
- ： “濟州島方言의 接尾辭研究”，「濟州大學論文集」 9, 제주대학, 1978.
- ： “濟州島方言의 曲用에 대하여”，「濟州大學論文集」 10, 제주대학, 1979.
- ： “濟州島方言 語彙考(二)”，국문학보 제七집, 1975.
- 康貞姬： “濟州方言의 處格 ‘-디’에 관한 一考察”，「方言」 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 姜榮峯： “濟州島方言의 後置詞에 관한 研究”，제주대학교교육대학원, 1981.
- 高永根： “현대 국어의 접미사에 대한 구조적 연구(I)”，서울대 논문집 18, 1982.
- 金敏洙： “國語의 格에 대하여”，「국어국문학」 49·50, 국어국문학회, 1970.
- 金履浹： 「平北方言辭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 金昇坤： 「韓國語 助詞의 通時的 研究」, 大提閣, 1978.
- 朴用厚： 「제주방언연구」, 동원사, 1960.
- 石宙明： 「濟州島方言集」, 서울신문사출판부, 1947.
- 成光洙： “國語 主語 및 目的語 重出現象에 대하여”，「문법연구」 1, 문법연구회, 1974.
- ： 「國語助辭에 대한 研究」, 형설출판사, 1980
- 申光洙： 「石北討集」, 대양서적, 1976.
- 申昌淳： “國語助詞의 研究(II)”，국어국문학 71, 국어국문학회.
- 朴炳采： “古代國語의 格形研究”，고려대 60周年紀念論文集, 1965.
- ： “古代國語의 格形研究(續)”，人文論集 8, 고려대, 1967.
- 安秉禧： “不定格 定立을 위하여”，「東亞文化」 6, 동아문화연구소, 1966.
- ： “中世國語의 屬格語尾 ‘人’에 대하여”，「李崇寧博士頌壽紀念論叢」, 1968.
- 李基白： “國語助詞의 史的 研究”，「語文論集」 9·10, 경북대, 1975.
- 李基文： 「國語史概說」, 탑출판사, 1980.
- 李秉根： “鬘峯地域語의 움라우트 現象”，「國語學論文集」 6, 1977.
- 李炳銑： “主格助詞研究”，「국어국문학」 72·73, 국어국문학회, 1976.
- 李崇寧： 「濟州島方言의 形態論的 研究」, 탑출판사, 1978.
- 李翊燮： “嶺東方言의 敬語法研究”，「서울대 교양과정부논문선」 6, 1974.

- 劉昌淳; 「李朝國語史研究」, 二友出版社, 1978。
- 任洪彬; 「國語의 主題化研究」, 國語研究28, 1972。
- _____ ; “主格重出論을 찾아서”, 「문법연구」1, 문법연구회, 1974。
- 제주도교육위원회편; 「耽羅文獻集」, 1976。
- 秦聖麒; 「南國의 民譚」, 형설출판사, 1976。
- 崔明玉; 「慶北 東海岸 方言研究」, 계명대출판부, 1980。
- 최현배; 「우리말본」, 정음사, 1959。
- 千時權·金宗澤; 「國語意味論」, 형설출판사, 1971。
- 허 응; 「우리옛말본」, 정음사, 1975。
- 玄容駿; 「濟州島 巫俗科資事典」, 신구문화사, 1980。
- 玄容駿·金榮敦; 「韓國口碑文學大系」 9-1, 9-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1981。
- 玄平孝; 「濟州島方言研究第一輯(資料篇)」, 정연사, 1962。
- _____ ; 「濟州島方言의 定動詞語尾研究」, 동국대대학원, 1974。
- 玄平孝·金洪植·姜根保; “濟州島方言의 活用語尾에 대한 研究”, 제주대학논문집 6, 1974。
- 洪允杓; 「15C 國語의 格研究」, 국어연구 21。
- _____ ; “主格語尾 ‘-가’에 대하여”, 「國語學」3, 국어학회, 1976。
- _____ ; “方向性表示의 格”, 「國語學」6, 국어학회, 1978。
- _____ ; “全州方言의 格研究”, 「어학」5, 전북대 어학연구소, 1978。
- Anderson, J. M; on Case Grammar, Croom Helm London Humanities Press, 1977。
- Fillmore, C·J; Case for Case, Universals in Linguistic Theory by Bach & Harms。
- Ramstedt, G·J; A Korean Grammar, Helsinki, 1939。

< summary >

A study on the Case Endings of Cjeju dialect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case endings of Cheju dialect and their analyses of the morphologic, syntactic, and semantic characteristics related to their noun phrases and verb phrases.

The contents of this study can be outlined as follows.

Case endings are studied with deviding into eight cases; nominative, accusative, genitive, locative, instrumental, comitive, vocative, and casus indefinitus.

1. Nominative cases are /-i/, /-ka/, /-isə/; and the case ending of ϕ form is devisioned into negative case, which proved different from the sentences with case endings. The case ending phenomenen of double subjects in a setence is found as that of topicalization of a sentence.
2. Accusatives have such cases as /-l/, /-l ə l/, /-ə l/, and negative-case sentence with the form of ϕ is frequently found, as is in the sentences of nominatives.
3. The double accusative form in a sentence is derived from the sentences that dative case and genitives are transformed into accusatives in meaning.
4. Genitive cases are /-ŭi/, /-i/, /-ne/, and 's(ʌ)', 'h(ḥ)' also have genitive functions in sentences. /-ne/, with the plural and genitive function of a genitive case, in the case that NP has the meaning quality of /+human/. 'ʌ', and 'ḥ', have changed the the initial sound of the following NP into fortes and aspirates.
5. /-e/, /-i/, /-isə/, /-di/, /-tŭre/, and /-re/ have case functions of locatived. /-e/ and /-i/ are used

as locatives in this whole island, and /-sə/ has the emphatic meaning as post-position. /-di/ is found as a combined form after /t/ group and /h/ group. /-türe/ has the locative function in the sentence that NP is used as a demonstrative pronoun.

6. Instrumental cases, /-üro/, /-ro/, hardly have typical meaning of this dialect as cases; they are almost used as the standard Korean case endings.
7. Comitative cases are /-gwang/, /-wang/, /-yeong/. Comitative cases of standard Korean, /-wa/ and /-gwa/, are affixed with the affix, /ᄒ /, which is typical comitative case of the dialect of the dialect of this island.
8. /-a/, /-ia/, /-massŭm/ are found as vocative cases. /-massŭm/ has the meaning of esteem, only combined to NP with the meaning of esteem.
9. A slight attempt has been made to study on the negative cases of this dialect. That is, from the aspect that the sentences have different meanings according that they have case endings or not, ϕ from case ending is included in the category of negative case.